

‘긱간 텅텅’ 정부, 마이너스 통장 ‘퐁퐁’

1분기 45.1조 대출 12.6조 상환 ‘역대 최대’...이자만 638억 대출 조건 강화에도 잔액 증가...기재부 “재정 조기집행 영향”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 (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뜻이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지난해 일시 대출 급증으로 한은이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는데도 오히려 대출 잔액은 더 불었다. 그만큼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3월에만 35.2조원 한은서 빌려...역대 최대 월

대출=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정부 “1분기는 세수 부족기...상반기 재정 집행도 많아” =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 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출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 기간에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라며 “더구나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기재부는 복지·일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도한 일시대출, 물가 자극 등 부작용 =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국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국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한도·상환 기한·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한은이 일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통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사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 대출이 급증한 데 대한 지적이 많아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대조건에 일시 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며 “기재부가 부대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연합뉴스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입주자 사전점검 허용

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부실 사전 차단 기대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준공 후 6개월 내 보수해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

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 중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

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 프리미엄의 새로운 중심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74~106㎡ 1272가구 본격 분양...22일 특공·23~24일 1·2순위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조감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2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죽림1지구(A2·A4블록) 내에 들어서는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먼저 A2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별로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 등 총 931가구 규모다.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74㎡ 42가구 ▲84㎡ 299가구 등 총 341가구 규모다. 단지는 공공분양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무엇보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되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택지 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

가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한다. 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이미 조성이 끝난 죽림2지구에 상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고,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 어린이도서관’이 단지 내에 2025년 개관 예정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로 진행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완화된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다. 견본주택은 여수시 웅천동 1802-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 ‘눈치’ 직원이 대표 메뉴인 ‘딸기 생크림롤 크레이프’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달달함의 신세계 맛보세요”

25일까지 ‘눈치’ 팝업 스토어... ‘사과당’ 팝업스토어도 연장 운영

로또복권 (제1115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2	23	32	34	36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2,257,278,282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5,242,610	60
3	5개 숫자일치				1,454,901	3,103
4	4개 숫자일치				50,000	158,614
5	3개 숫자일치				5,000	2,584,491

광주신세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과일을 이용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디지털 팝업을 연이어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지역 내 유명 카페인 ‘눈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눈치는 생과일을 이용한 과일 롤 크레이프로 유명한 카페로, 당일 생산과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현장에서 직접 크레이프를 제작하고 과일 토포를 올려 신선함으로 인기가 높다. 대표 상품으로는 딸기 생크림롤 크레이프와 누텔라 딸기롤, 바나나롤 크레이프, 망고 생크림 롤 크레이프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는 또 고객 인기에 힘입어 앞서 지난 달 한달만 운영하기로 했던 베이커리 카페 ‘사과

당’ 팝업스토어를 이달 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애플파이로 유명한 사과당은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던 지난달 광주신세계에서 오픈런과 웨이팅 단란을 일으키는 등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광주신세계는 베이커리와 도시락 등 음식들을 빠르게 픽업할 수 있도록 사전 주문 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브랜드는 플러스 크로플, 몽슈슈, 소맥 베이커리, 비와 별 닭갈비로, 전날 오후 5시까지 사전 계산 후 주문할 시 픽업 시간에 맞춰 당일 픽업이 가능하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디지털 발길을 통해 고객들에게 맛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릴레이 팝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용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제9기 광주 고용전문가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년간 고용·노동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다양한 사례학습을 통해 지역 내 고용전문가 390여 명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지역 일자리사업 현황과 전망, 인구조사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 고용 및 일자리 통

계분석, 광주시 전략산업 동향과 노동시장 구조 파악 등 최신 고용·노동정책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수강생 간 업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통합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에서 개최되는 제1차 교육은 지역 일자리 사업 변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공공·민간 기관의 일자리 사업 담당자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062-350-5894)를 통해 별도의 참가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